

Newsletter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인투인월드입니다.

㈜인투인월드는 환자와 연구자, 스폰서 간의 신뢰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의료 혁신의 가치를 안전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설립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사람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연구자 주도 임상(IIT), 관찰연구(OS) 등 다양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에 언제 쓸까... 환자 중심으로 바뀌는 항암 임상

비원메디슨코리아는 3D 전략과 내부 임상팀 주도로 항암 임상 수행 속도를 업계 평균보다 약 30% 높였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 임상과 바이오마커 기반 설계, 병용요법 확대로 연구 복잡성은 커졌지만 한국은 높은 의료 접근성과 연구 신뢰도를 강점으로 갖고 있다. 다만 규제·행정 복잡성과 인력·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앞으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매출 둔화에도 R&D 늘렸다"... 제약1분기 투자두 자릿수 증가

상장 제약사들의 2026년 1분기 연구개발비 투자가 매출 부진에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투자 상위 기업들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정부의 약가개편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도 추가 확대 기대를 키우고 있다.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기업 간 투자 격차는 여전히 뚜렷해 상위사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매출은 오르는데 흔들리는 영업순이익... 1분기 제약 안정속 불안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갔지만, 수익성 흐름은 기업 규모와 사업 구조에 따라 엇갈렸다. 매출 상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중하위권 기업들은 영업이익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영업외순이익이 순이익을 방어하거나 끌어올린 사례도 나타나며, 단순 매출보다 수익 구조의 질과 안정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책 변화와 비용 부담 속에서 기업별 체력 차이도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Newsletter



"해외거점병원, 의료기기 글로벌 인허가 전진기지로 재구성해야"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개발 이후 실증·임상·인허가·글로벌 진출 단계에서 병목이 크며, 이를 해결하려면 전 주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FDA 인허가는 미국 진출을 넘어 글로벌 확산의 신뢰 기준으로 작동해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해외 거점병원을 임상·실증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정부가 공동 인프라와 제도 설계를 지원해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사업화와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험인증 협력으로 의료기기도약기회잡아야"

약가 인하 압박 속에서 제약업계가 의료 AI와의 결합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 제약사 영업망과 의료 AI 기술을 결합한 협업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수익화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동시에 자율 수술 로봇과 에이전틱 AI가 병원 현장에 도입되면서 의료산업 전반이 플랫폼, 데이터, 자동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향후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현장 적용력과 데이터 인프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임상시험 효과 입증한 의료 AI... 기업 92% "투자 확대 계획"

임상시험 산업에서 AI 활용 논의가 도입 여부를 넘어 실제 운영 확대와 성과 창출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 다수는 AI 효용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평가했으며, 92%가 향후 1~2년 내 투자 확대를 계획했다. 특히 조기 도입 기업일수록 임상 기간 단축, 프로토콜 이탈 감소, 워크플로우 자동화 등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 AI 기반 프로토콜 설계와 에이전틱 AI 활용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